

유대교 정결법이 상상하는 공간

윤성덕*

- I. 들어가는 말: 덮기 부정이 전이되는 공간
- II. 덮기 부정과 관련된 본문 분석
- III.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 IV. 요약 및 결론

I. 들어가는 말: 덮기 부정이 전이되는 공간

유대교 정결법은 히브리 성서 머리에 나오는 첫 다섯 권 즉 ‘토라(tōrah)’에서 명령하는 유대인의 생활규칙을 다룬다. 이 법전통에 따르면 세상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그리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거룩한 신을 모시는 성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기 때문에 정결법에 따라 부정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¹⁾

사람이나 물건으로 부정을 전이할 수 있는 부정의 요인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곤충의 시체, 특별한 피부병 환자, 월경하는 여자, 출산한 여자 등이며, 접촉이나 옮기기, 들리기, 없기 등의 방법을 통해 전이된다. 이 중에서 가장 특이한 전이방법

* 건국대학교 중동연구소 연구원

1) 유대 정결법은 히브리 성서 ‘레위기’에서 ‘부정하다(tāmē)’라는 말로 제의적인 부적합성을 ‘정결하다(tāhēr)’라는 말로 제의적인 적합성을 구분하면서 시작했고, 고대 이스라엘 시대(제 1 성전시대)부터 로마 식민지 시대(제 2 성전시대)까지 준수되었다. 물론 독실한 유대교 신자들은 지금도 특정한 정결법을 지킨다.

은 ‘덮기’(ohel 천막, 민수기 19:11-19 참조)인데, 어떤 사람이나 그릇이 시체와 같은 부정의 요인과 같은 천막 안에 있으면 부정이 전이된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민수기 19:14)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위생 관련 상식에 따르면 전염의 위험에 있는 요인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규칙은 제의적인 정결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공기로 전이되는 전염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천막’이라는 공간을 매개체로 부정의 요인인 시체와 간접적으로 접촉하여 부정이 전이된다고 보고, 조금 색다른 전이방식으로 이해한 듯하다. 결과적으로 일정한 접촉을 전제하는 전이방법과 다르게 어떤 물질적인 매개체가 없어도 공간을 통해 부정이 전이된다는 매우 특이한 개념을 내세운다.

그런데 이 전통이 토라에서 랍비 유대교로 계승되면서 독특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토라의 규정을 더 정확하게 정의하려는 목적으로 미쉬나 본문은 덮기 부정이 전이되는 공간의 최소 크기 규정을 마련하는데,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1 테파(tepah 약 8-9 센티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제한한다(미쉬나, 오홀롯 3, 7; 12, 6, 7).²⁾

[어떤 공간이 가로와 세로가]³⁾ 1 테파에 1 테파이고 높이도 1 테파인 정육면체라면

2) 미쉬나는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고대의 가르침을 서기 2세기 말에 예후다 한나씨 랍비가 편집하여 책으로 펴냈다고 알려져 있으며, 책 형태로 전체 내용이 온전히 남아있는 사본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서기 10-11세기에 필사한 카우프만 사본(the Kaufmann collection)이다. 미쉬나 안에는 ‘세데르(séder)’라고 부르는 구획이 모두 여섯 개가 있으며, 각 세데르 안에는 다시 ‘마세켓(masseket)’이라고 부르는 구획이 7-12개 있다. 미쉬나 본문은 Hanoch Albeck ed., *The Mishna* (Jerusalem: Bialik Institute and Devir, 2011)를 사용하며, 히브리어에서 한글로 옮긴 번역은 저자의 사역이다.

3) 미쉬나 본문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지나치게 간략한 원문의 표현을 이해하기 쉽도록 문맥을 설명하는 말을 삽입하였다. 꼭 필요한 말이지만 원문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대학 학계의 관례에 따라 대괄호로 묶어서 표시했다.

부정을 전이시킬 수도 있고 부정을 막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가]? 집 밑에 가려진 배수관이 있고, [그 부피가] 1 테팍인 열린 공간이 있으며, [그 부피가 1 테팍인] 배출구가 있는데, 부정의 [요인이] 그 안에 있다면, 그 집은 정결하다. 부정의 [요인이] 집에 있다면, 그 [배수관] 안에 있는 것은 정결하다. (미쉬나, 오희롯 3, 7)

이 미쉬나는 덮기 부정을 적용할 수 있는 공간이 최소한 가로 1 테팍, 세로 1 테팍, 그리고 높이 1 테팍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최소 크기 규정에 맞는 배수관이 집 바닥 밑에 있고 또한 최소 크기 규정에 맞는 배출구가 열려 있다면, 부정의 요인이 배수관에 있어도 배출구를 통해 밖으로 이동하며, 집 안으로 부정을 전이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부정의 요인이 집 안에 있을 때, 그 배수관은 최소 크기 규정에 맞는 독립된 ‘천막’이므로, 덮기 부정이 배수관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막는 힘이 있으며, 그 안에 내용물이 있었다면 정결을 유지할 수 있다. 공간을 통해 부정이 이동하고, 공간을 경계로 부정의 전이를 막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베레드 노암(Vered Noam)은 토라가 말하는 ‘천막’ 개념이, 첫째, 시체 부정의 매개체이며, 둘째,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의 내용물도 부정해지고, 셋째, 덮기 부정 때문에 부정해진 자는 접촉으로 부정을 전이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초기 랍비들에 의해서 첫째, 천막 이외에도 시체를 덮는 것은 무엇이든 덮기 부정의 매개체가 될 수 있으며, 둘째, 천막 안에 있는 사람과 물건은 물론 천막 자체도 부정해지고, 셋째, 천막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부피가 1테팍이 되는 모든 공간으로 대체했다고 정리하였다.⁴⁾

토라에서 단순히 ‘천막’이라고 말했던 대상을 미쉬나가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각각 1 테팍 이상인 ‘공간’으로 추상화하고 그 안에서 덮기 부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유를 설명하는 글은 없다. 그러나 미쉬나가 편집되던 시절에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천막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한 규정으로 재해석 하는 작업이 필요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미쉬나는 여기서 멈추지

4) Vered Noam, “Ritual Impurity in Tannaitic Literature: Two Opposing Perspectives,” *Journal of Ancient Judaism* 1 (2010): 74-75.

않고 바로 옆에 이런 최소 크기 규정에 맞는 천막 즉 공간이 형성되면, 그 공간을 출입구로 삼아 한 곳에서 발생한 덮기 부정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말한다. 토라의 규정이 천막 안에서 직접 접촉하지 않은 두 대상 사이에 부정이 전이된다고 불분명하게 규정한 내용을 확대 적용하면서, 일정한 크기 조건이 맞는 공간이 있다면 덮기 부정이 마치 살아 있는 존재처럼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을 한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토라의 규정을 추상화하면서 발생한 논리적인 추론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부정이 어떤 ‘상태’가 아니라 자연계에 존재하는 ‘실체’로 묘사하는 것처럼 들린다.

이러한 경향은 어떤 천막 옆에 있는 다른 천막이 최소 크기 규정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런 조건에서 덮기 부정은 옆에 있는 공간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 더 이상 옆으로 이동할 수 없는 덮기 부정을 ‘막힌 부정 (tum'āh rəšûšāh)’라고 부르는데, 그 부정의 요인이 옆으로는 이동할 수 없지만 ‘위로는 궁창까지(ad hārāqī'a) 아래로는 깊은 곳까지(ad hattēhôm)’ 미쳐서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hakkōl tāmē)’고 말한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그 별통이 온전하고] 혈겁계 [고정한] 그릇일 때 [그렇다는] 말이다. 그것이 부서졌거나 짚으로 막혔거나 붙어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붙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다른 장소에 [붙여서] 1 테팍 [크기의 공간도]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올리브 열매 [크기만] 한 시체의 [일부분이] 그 아래 놓여 있다면 바로 밑으로 깊은 곳까지 부정해진다. [부정한 것이] 위에 있다면, 바로 위로 궁창까지 부정해진다. (미쉬나, 오홀롯 9, 7; 참고 9, 3)

인용문 바로 앞 여섯째 미쉬나에서 별통 밑에 부피가 1 테팍인 공간이 있고 부정한 것이 그 안에 있을 때 집 안으로 부정이 전이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인용문이 말하는 것처럼 부피가 1 테팍인 공간이 없다면, 옆으로 부정이 전이될 수 없다.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 갇힌 부정이 움직이는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 끝까지 또는 하늘 끝까지 뚫고 나간다고 묘사하고 있다. 일반적인 덮기 부정이 최소 크기 규정에 맞는 공간으로 제한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생각하면, 오

히려 막힌 부정은 위와 아래로 거의 무한대로 이동을 한다는 것처럼 들린다.⁵⁾ 논의가 이 지점에 이르면 과연 미쉬나의 덮기 부정 관련규정이 일반인들의 생활규칙인 정결법을 설명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고, 덮기 부정과 관련된 정결법 규정들을 적용하는 공간이 어떤 방식으로 규정되었는지 질문하게 된다.

본 논문은 덮기 부정과 공간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유대교 법전통을 처음 글로 기록한 미쉬나 본문을 연구하기로 한다. 미쉬나 안에는 정결법을 다루는 세데르 토호롯(sēder tohōrōt)이 있고, 그 중 덮기 부정을 다루는 마세켓 오홀롯(masseket 'ohōlōt)이 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랍비 유대교의 종교사상이 발전하던 초기 단계를 가장 잘 조명할 수 있다. 미쉬나 본문 중에서 막힌 부정에 관해 언급한 세 가지 표현, 즉 ‘궁창까지’, ‘깊은 곳까지’, 그리고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는 말의 용례를 분석하려고 한다. 덮기 부정을 공간과 관련해서 언급한 예는 위의 세 가지 표현이 등장하는 본문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본문들을 비교하고 분석하며, 또 이와 관련된 개념이 다른 주제와 관련해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유대교 정결법 안에서 이런 공간개념이 형성된 이유를 묻고, 어떤 경우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런 개념을 적용하였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 주제에 관련된 선행 연구는 매우 드물다. 토라 본문이 천막이라는 물리적 실체를 언급했는데 후대 랍비들이 이것을 일정한 크기의 공간으로 추상화시켰다는 주제는 여러 학자들이 언급한 바 있다.⁶⁾ 위에서 언급한 베레드 노암의 연구도 좋은 예이다. 그러나 덮기 부정 중에서 막힌 부정에 초점을 맞추고 그 공간적 개념을 질문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이 논문이 이런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

5) 노암은 이런 현상이 부정을 실제적인 존재로 이해하여 기초적인 ‘양’이 작은 공간에 간헐 압축되다가 위와 아래로 터져나가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Noam, “Ritual Impurity,” 81-84.

6)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글들을 보라. Jeffrey L. Rubenstein, “On Some Abstract concepts in Rabbinic Literature,” *Jewish Studies Quarterly* 4/1 (1997): 33-73; Hyam Maccoby, “The Corpse in the Tent,” *Journal for the Study of Judaism* 28, no. 2 (1997): 195-209; Jacob Neusner, “The Mishnah and its Times: The Three Stages in Halachic Category - Formation,” in *The Mishnah: Religious Perspectives* (Leiden: Brill, 1999), 157-210.

다.

II. 덮기 부정과 관련된 본문 분석

본격적으로 본문을 분석하기 전에 연구대상으로 삼은 표현들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는 말은 그야말로 어떤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물건이 부정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그 범위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천막 내부를 언급할 때와 달리 궁창이나 깊은 곳 같은 표현과 함께 나올 때 거의 무한대로 부정의 영향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궁창까지’라는 말은 ‘~까지’(ad)라는 전치사와 ‘궁창’(hārāqī'a)이라는 명사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궁창’은 하늘의 한 부분을 가리키는데, 고대 서아시아 사람들은 하늘 위에 큰 물이 있었다고 생각했고, 이 물이 세상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막는 투명하면서도 딱딱한 바닥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것을 궁창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막힌 부정이 위 방향으로 부정을 전이하되 궁창이 그 경계가 된다는 것이다.

셋째, ‘깊은 곳까지’라는 말도 비슷하게 ‘~까지’(ad)라는 전치사와 ‘깊은 곳(hattahôm)’이라는 명사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깊은 곳은 지하의 세계이며 죽은 영혼이 내려가서 사는 내세이기도 하다. 막힌 부정이 깊은 곳의 영역 내부로 침입한다기보다는, 위의 ‘궁창까지’라는 말처럼 깊은 곳의 경계까지 부정의 영향이 미친다는 말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두 표현을 보았을 때 궁창이나 깊은 곳이라는 말은 전통적인 고대 서아시아의 삼중 세계관을 배경으로 삼고 있으며,⁷⁾ 유대 종교법의 일부인 정결법이 이런 문화적 전통의 사고 범위 안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 Wayne Horowitz, *Mesopotamian Cosmic Geography*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11)를 참조하라.

이러한 표현들이 포함된 연구 본문들을 미쉬나 기록 순서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특정한 상황들을 차례로 논의하고 있다. 들어가는 말에서 간단하게 설명한 덮기 부정과 공간을 통한 전이과정이 실제 미쉬나 본문에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1. 집 안에 있는 벌통

벌통은 그릇과 달리 벽에 구멍이 많은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⁸⁾ 이런 벌통이 현관 안에 있고 그 입구가 바깥쪽을 향하고 있을 때, 부정의 요인이 벌통 안에 있으면, 부정이 벽 구멍을 통해 집 안으로 이동하여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든다(미쉬나, 오홀롯 9, 1). 그 벌통이 땅에서 1 테팍 높이로 떨어져 있고 부정한 요인이 벌통 밑에 생긴 공간에 또는 집 안에 또는 그 위에 있다면,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9, 2). 덮기 부정이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하며, 특히 크기 규정에 맞는 공간이 있을 때 그것을 매개체로 전이된다는 원리를 설명한다.

벌통의 입구가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부정의 요인이 그 안에 있었다면, 입구를 통해 집 안으로 부정이 전이된다(9, 5). 벌통의 입구가 안쪽을 향하고 있었고, 부정의 요인이 벌통 아래나 위에 있다. 1 테팍 부피의 공간이 없었다면, 천막 안에 들어있지 않으므로 직접 관련된 위나 아래로만 부정이 전이된다(9, 5). 이 벌통이 땅에서 1 테팍 높이로 떨어져 있었고, 부정의 요인이 그 아래나 위나 그 안에 있었다면,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9, 6). 손상된 벌통이 땅에서 1 테팍 떨어져 있고 입구가 안쪽을 향하고 있을 때, 부정의 요인이 그 아래나 그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9, 8). 이런 규정들도 덮기 부정이 열린 출구를 이용해서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공간이 최소 크기 규정에 미치지 못하면 옆으로

8) 유대 정결법에서 ‘그릇’은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오목한 공간이 있는 물체이며, 부정이 전이될 수 있다. 이런 공간이 없거나 있어도 구멍이 나서 물이 썰 수 있다면 그릇이 아니며, 부정이 전이될 수 없다. 벌통은 벌이 드나들어야 하기 때문에 구멍이 있어야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그릇이 아니며, 자기 스스로는 부정해지지 않지만 부정을 전이시킨다. 구멍을 막으면 그릇으로 간주하며 부정이 전이될 수 있다.

전이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벌통이 손상되었거나 다른 장소에 붙어서 그 사이 공간이 1 테팍에 미치지 않은 경우, 부정의 요인이 벌통 아래에 있다면 밑으로 깊은 곳까지, 위에 있었다면 위로 공창까지 부정해진다(9, 7). 손상된 벌통이 땅에서 1 테팍 떨어져 있고 입구가 안쪽을 향하고 있을 때, 부정의 요인이 그 위에 있다면, 위로 공창까지 부정해진다(9, 8). 전이의 매개체가 최소 크기 규정에 미치지 못했을 때, 부정이 옆으로는 이동하지 못하지만 위와 아래로 이동한다는 원리를 언급한다.

2. 열린 공간에 있는 벌통

벌통이 집 밖에 열린 공간에 있고 입구가 옆으로 열려 있을 때, 부정의 요인이 그 벌통 아래나 위에 있다면, 천막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부정은 각각 아래와 위로 전이된다. 부정한 것이 그 안에 있어도 벌집은 천막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와 위로 전이된다(9, 11).

벌통이 집 밖에 열린 공간에 옆으로 누워 있고 땅에서 1 테팍 높이로 떨어져 있을 때, 부정의 요인이 그 아래나 위에 있다면,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9, 12). 전이의 매개체가 되는 공간이 있으니 부정이 옆으로 이동하며,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뻗어간다.

벌통이 집 밖에 똑바로 서서 입구가 위를 향하고 있으며, 손상된 부분이 없고 땅에 고정되지 않으면 ‘그릇’이 될 수 있다. 그 벌통이 땅으로부터 최소 크기 규정에 맞는 공간만큼 떨어져 있거나, 입구를 덮기는 했는데 꼭 맞는 뚜껑이 없거나, 뒤집어 놓아서 입구가 땅을 향하고 있을 때, 부정한 것이 그 아래나 내부나 그 위에 있다면 각각 아래나 위는 물론 옆으로도 전이된다(9, 13). 벌통의 지위가 바뀌면서 열린 공간에 노출된 부정이 모든 방향으로 이동한다.

벌통이 손상되었거나, 짚으로 막아 놓았다거나, 40 쉼이 들어갈 정도로 무거우면 ‘그릇’이 아니다. 이 때 부정한 것이 그 아래나 내부나 위에 있다면, 부정은 각각 아래나 위 방향으로 전이되며, 최소 크기 규정이 되는 공간 위에 있어도 같은

방향으로 전이된다(9, 14). 부정이 수직방향으로만 이동하는 조건들이다.

3. 점토로 만든 통

점토로 만든 통이 집 바깥 열린 공간에 서 있는데, ‘천막’ 역할을 할 천장이나 지붕이 없는 상태이다. 그 통이 땅에서 1 테곽 높이로 떨어져 있거나, 덮여 있거나, 입구가 밑을 향하고 있을 때, 부정한 것이 그 아래나 내부나 위에 있다면, 옆으로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9, 16). 부정의 요인이 그 바닥 바로 밑에 또는 그 안에 있다면, 부정은 위와 아래로 전이된다(9, 16). 열린 공간에 있는 점토로 만든 통은 ‘그릇’의 범주에 들며, 최소 크기 규정에 맞는 공간을 통해서 옆으로 이동한다. 그런 공간이 없으면 수직방향으로 이동한다.

4. 건물 내부에 있는 통로

여러 층이 있는 건물에서 가로와 세로가 1 테곽 이상이 되는 통로가 층과 층 사이에 있고, 한 통로가 다른 통로와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다.⁹⁾ 그 통로를 부정이 전이될 수 있는 물건으로 막아 놓았다. 통로가 막힌 층 전체가 ‘천막’이 되며, 일단 그 층이 부정해진다. 그러나 결국 그 물건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다른 층으로 즉 위와 아래로 부정이 전이되면서 모든 층이 부정해진다. 부정이 전이되지 않는 물건으로 막았다면, 그 물건 밑에 있는 층만 부정해지고 더 이상 부정이 전이되지 않는다(10, 4). 그 외에도 통로가 1 테곽이 되지 않는 경우(10, 5), 통로를 냄비로 막은 경우(10, 6-7)에 관한 규정들이 있는데, 관찰 대상으로 삼은 표현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공간의 성격보다는 특정한 연결 통로와 그것을 막는 물건의 성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논의의 주제에서 벗어난다.

9) 여기서 ‘통로’라고 번역한 것은 천장에 뚫린 구멍을 가리킨다. 여러 층이 있는 건물을 가정한다면, 한 층이 한 집이고 한 층에서 다른 층으로 올라가는 다른 계단이 없이 이런 통로만 있는 상황이다. 아마도 나무로 만든 사다리를 만들어 이동하는데 사용했을 것이며, 사용하지 않으면 막아 놓았을 것이다.

지하실로 통하는 통로를 바구니로 막은 경우(11, 9)도 비슷하며, 바닥과 바구니가 연결되어 부정을 막는다는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

5. 화덕

화덕의 입구를 크기가 꼭 맞는 망으로 막은 화덕 위에 다른 큰 망을 설치했는데, 부정의 요인이 그 큰 망의 위나 아래 또는 화덕 입구의 맞은편에 있다면, 적합한 공간이 없으므로 부정이 위로 공창까지 전이된다(12, 2).¹⁰⁾ 그러나 화덕 내부는 정결을 유지한다. 부정의 요인이 있는 위치에 이동을 매개할 공간이 없다면 덮기 부정이 옆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수직방향으로 전이된다. 점토로 만든 화덕은 이 부정의 영향을 막을 수 있으므로, 그 내부는 부정해지지 않는다.

6. 들보

건물을 짓는 도중에 아래층과 위층 들보를 놓았지만 아직 회를 발라 그 사이를 막지 않은 상황이다.¹¹⁾ 위층의 들보와 아래층의 들보가 서로 마주보고 나란히 있든지 아니면 서로 교차되어 있든지, 부정의 요인이 위층 들보 위에 있다면 그것이 위로 공창까지 부정을 전이하지만, 아래층은 정결을 유지한다(12, 5). 반대로 아래층 들보 아래 있었다면 땅 속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적합한 매개 공간이 없는 부정의 전이를 보여준다.

10) 화덕은 점토로 빚었고 내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릇’으로 취급하고 그릇과 관련된 정결법을 적용한다. 그 입구를 꼭 맞는 마개로 막으면 부정이 전이되지 않지만, 망은 구멍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정의 전이를 막지 못한다.

11) 들보는 목재이며 오목한 공간이 없어서 ‘그릇’이 아니다. 부정이 전이되거나 전이시키지 않으므로, 부정의 요인이 들보 위에 있으면 그 위로 들보 아래 있으면 아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7. 처마

현관이나 창문 위에 처마가 있는데, 부정의 요인이 처마 위에 있다면 위로 궁창까지 부정해진다(14, 5-6). 역시 매개체가 될 공간이 없는 경우이다.

본문 내용을 공간 이해에 따라 분류하면 덮기 부정이 공간의 성격에 따라 양 옆으로 수평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위와 아래로 수직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정리하여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주제	세부 상황	운동 방향
1	집 안에 있는 별통	별통 입구가 밖을 향하고 있을 때; 바닥에서 1 테팍 떨어져 있을 때	수평 운동
		별통 입구가 안을 향하고 있을 때; 바닥에서 1 테팍 떨어져 있을 때	수평 운동
		별통 입구가 안을 향하고 있는데, 1 테팍이 되는 공간이 없고, 부정한 것이 위나 아래 있을 때	수직 운동
		별통이 손상되었고, 부정한 것이 위나 아래 있을 때	수직 운동
		별통이 손상되었고, 바닥에서 1 테팍 떨어져 있을 때	수평 운동
2	열린 공간에 있는 별통	별통이 옆으로 누워 있을 때	수직 운동
		별통이 누워있고 바닥에서 1 테팍 떨어져 있을 때	수평 운동
		별통이 똑바로 서있고, 바닥에서 1 테팍 떨어지거나, 뚜껑이 없거나, 뒤집혀 있을 때	수직/수평 운동
		별통이 손상되었거나, 막혀 있거나, 너무 클 때	수직 운동
3	점토로 만든 통	통이 바닥에서 1 테팍 떨어져 있거나, 덮여 있거나, 뒤집혀 있을 때	수평 운동
4	집 안에 있는 통로	-	-
5	화덕	화덕 위에 설치한 큰 망 위나 아래 부정한 것이 있을 때	수직 운동
6	들보	들보 위에 부정한 것이 있을 때	수직 운동
7	처마	처마 위에 부정한 것이 있을 때	수직 운동

논의를 정리하면, 토라가 언급한 천막은 위를 덮는 물건만 있다면 경계를 확정하는 벽이 없어도 성립하는 특정한 크기의 공간이나 상태로 해석되었다.

최소 크기 규정에 맞거나 그 이상이 되는 공간이 있다면, 덮기 부정을 적용할 수 있다. 최소 크기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서는 덮기 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

한 공간에서 발생한 덮기 부정은 역시 적절한 크기의 공간으로 수평이동을 한다. 그러나 공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것은 막힌 부정이 되며, 옆으로는 이동하지 못하고 수직이동을 한다.

다시 말하면 유대 정결법이 이해하는 덮기 부정은 이동하는 힘이 있는데, 공간의 성격에 따라 수평 또는 수직으로 움직인다. 그렇다면 유대 랍비들은 높이는 제한되어 있지만 수평방향으로 열린 공간과 양 옆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수직방향으로 열린 공간을 가정하고 있는 셈이다.

Ⅲ.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위에서 살펴본 본문들은 미쉬나가 두 가지 서로 다른 공간을 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현상은 유대 정결법은 물론 안식일 관련 규정이나 민법 관련 규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적 영역(rāšūt hayāhīd)’과 ‘공적 영역(rāšūt haravīm)’이라는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축이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가축의] 이빨은 어떤 경우 유책사유가 되는가? [가축이] 먹기에 적당한 것을 먹은 [경우이니], 가축이 열매나 채소를 먹을 때 유책사유가 된다. [가축이] 옷이나 그릇을 먹으면, [그 주인은 손해액의] 절반만 배상한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피해자의] 사적 영역에서 [그러하며], 공적인 영역에서 발생했다면 [책임이] 면제된다. (미쉬나, 바바 캄마 2, 2)

집에서 기르는 가축은 원래 곡식과 열매와 채소를 먹는데, 주인이 주지 않은 먹지 말아야 할 곡식과 열매와 채소를 먹으면 유책사유가 된다. 그런데 가축이 다른 사람의 사적 영역에 침범하여 남의 곡식을 먹은 경우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공적 영역에서 남의 곡식을 먹은 경우는 구분해야 하며, 전자는 피해액을 배상하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 공적 영역에서는 주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기 재산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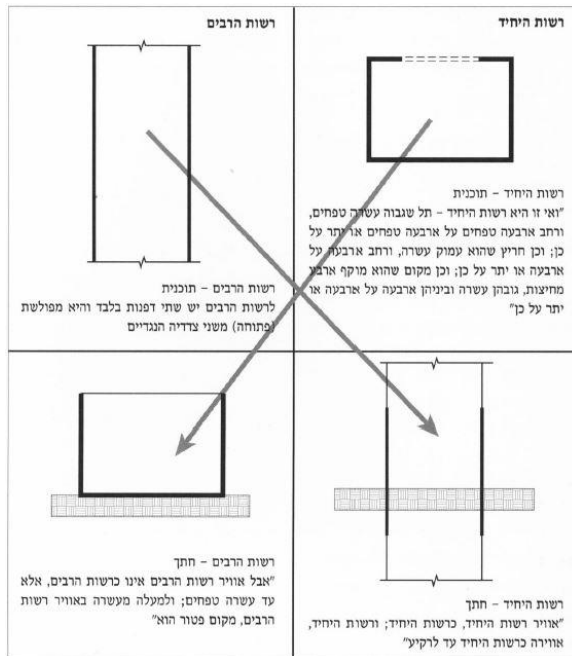
여기서 말하는 사적 영역이란 집이나 마당처럼 어떤 벽이나 울타리로 둘러싼 닫힌 공간을 가리키며, 최소 크기 규정은 사방이 4 테팍이다. 그러나 인간 개인이 존재하는 영역을 가리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특정한 의도를 가진 개인이 존재하는 영역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여러 개인이 협상을 통해 공동으로 사적 영역을 조성할 수도 있다.¹²⁾ 그런데 중세에 살던 요셉 카로 랍비는 사적 영역을 규정하면서 위로 궁창까지가 개인에게 속한다고 설명한다(술한 아룩, 오락 하임 345, 10; 바벨 탈무드, 샷랏 7앞면, 미쉬네 토라, 샷랏 14, 3).¹³⁾ 이 영역은 개인이 거주하며 지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개인 생활을 보장하고 지킬 울타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공적 영역이란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넓은 공간으로, 특정한 시간에 사람이 다니지 않아도 그런 관행을 역사적으로 기억할 수 있다면 공적 영역이 될 수 있다. 이 공간은 너비가 16 아매(ammāh 약 43-58 센티미터)에 길이는 제한이 없고 높이는 10 테팍으로 정해져 있다(바벨 탈무드, 바바 바트라, 99 뒷면; 술한 아룩, 오락 하임 345, 34-35). 이 영역은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길이에 제한이 있을 수 없으며,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행위를 하기에 적합하다.

12) 사적 영역에 속한 개인의 집 여러 채가 큰 마당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집주인들이 협의하여 개인 물품을 마당에 내어놓음으로써 그 집들과 마당 전체를 하나의 큰 사적 영역으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을 ‘에루브’라고 부르는데, 안식일에 물건을 옮기는 노동을 해도 이 영역을 벗어나지 않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3) 이와 비슷한 언급을 12세기의 로마법 전문가 아쿠르시오(Francesco Accursio)도 말했다. “Whose the land is, all the way to the sky and to the underworld is his.” Shlomit Weller-Cohen, “Imagined Places - Geography in Talmudic Literature,” *Horizons in Geography* 76 (2010): 32에서 재인용.

이렇게 볼 때 사적 영역은 옆으로 제한되지만 위로 뚫린 공간으로 양 옆으로 뚫렸지만 위로 제한된 공적 영역의 반대 개념이다. 사적 영역은 기둥처럼 서 있고 공적 영역은 두루마리처럼 펼쳐져 있는데, 사람이 생활하면서 필요에 따라 이 공간들을 바꾸어 가며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산지 사이에 있는 골짜기는 시내가 흘러서 농사짓기에 좋지만, 물리적인 경계가 있는 쪽도 있고 열린 쪽도 있어서 사적 영역인지 공적 영역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동안 평일에는 사람들이 드나들며 일을 할 수 있는 공적 영역으로 간주하고 이런 조건에서 정결법을 적용한다.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기 때문에 사적 영역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비가 오는 우기 동안에는 건천이 불면서 일을 할 수가 없으므로 언제나 사적 영역으로 간주한다(미쉬나, 토호롯 6, 7).



<그림 1> 오른쪽 위에 사적 영역의 평면도, 왼쪽 위에 공적 영역의 평면도, 오른쪽 밑에 사적 영역의 측면도, 그리고 왼쪽 밑에 공적 영역의 측면도이다. Weller-Cohen, "Imagined Places," 39.

안식일과 사적 영역의 상관관계는 노동이라는 주제를 통해 더 분명히 드러난다. 유대인은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출애굽기 20:8-11; 신명기 5:12-15), 미쉬나는 안식일에 시행하면 죄가 되는 노동 39가지를 정확하게 규정하였다(미쉬나, 샤밧 7, 2). 이 규정을 공간개념에 맞추어 재해석할 수 있는데,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 개인은 사적 영역에 머물면서 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어떤 물건을 들고 사적 영역(집)을 벗어나서 공적 영역(길)으로 나서는 순간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 대신에 그는 위에 계신 그의 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데 주력해야 하며, 이것은 위로 하늘까지 연장된 사적 영역의 특징과 잘 맞아 떨어진다. 그러나 평일에는 바깥으로 나가서 먼 거리를 이동하며 노동을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공동생활을 영위하게 되며, 이것은 옆으로 무한대까지 펼쳐진 공적 영역과 잘 어울린다.

IV. 요약 및 결론

미쉬나, 쉘테르 토호롯, 마쎬켓 오홀롯에 나오는 규정들은 시체의 일부와 같은 부정의 요인이 덮기 부정을 통해 이동하는 현상을 논의하는데, 그것이 위치한 공간이 일정한 크기 이상이 되어 독립된 '천막'을 형성하면 수평으로 이동하고, 크기가 미치지 못하여 갇히면 수직으로 이동을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유대인들이 평일에 공적 영역을 좌우로 자유롭게 다니며 다양한 행동을 하고, 안식일에 좌우로 제한한 사적 영역 안에 머물면서 위로 신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관련성을 법전통 형성과정과 관련해서 해석하자면, 토라가 언급한 생활규칙의 일부를 체계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천막을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추상화하면서 법의 내용과 적용범위가 확장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민법 등 다른 영역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던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이라는 개념과 연결되면서, 부정이 좁은 공간에 갇히면 위와 아래로 뺏어 나간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생각이 다시 생활규칙을 다루는 정결법 규정을 생산하여 막힌 부정과 관련된 내용을 생산하는 순서를 거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로마의 사유재산 관련법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랍비 유대교는 고대의 법전통을 계승하여 다양한 규정들을 생산한 것으로 유명 한데, 이 연구를 통해 그 법전통이 어떤 방식으로 확장되었는지 일부 엿볼 수 있었다. 고대의 법규를 시대 변화에 맞추어 재해석하면서 일단 개념을 추상화하였고, 다른 영역에서 사용하는 비슷한 논리를 차용하여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열었다. 결과적으로 고대 전통에는 존재하지 않던 다양한 규정들이 파생되어 나오게 되었다. 우리 주제에 맞추어 다시 말하면, 높이가 제한되어 있지만 양 옆으로 무한하게 뻗어 있는 공간은 평일에 다양한 많은 이웃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기에 알맞기 때문에, 부정의 요인이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여러 사람이나 물건에 부정을 전이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여 정결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마련해야 자신은 물론 공동체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양 옆으로 제한되어 있고 위와 아래로 무한하게 뻗어 있는 공간은 인간이 개인으로 남아 가족들처럼 최소한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신에게 초점을 맞추기에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부정의 요인이 옆으로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영향을 미칠까봐 조심하기 보다는 위로 신인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유의해야 한다.

전 세계가 생활권 하나로 변하면서 세계화를 실감하며 살면서도 동시에 거리를 두고 개인적인 공간을 확보하도록 요구를 받는 지금, 공간에 대한 이 두 개념이 서로 역동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유대교 정결법이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현대 한국인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법 규정들처럼 보이지만, 그 기초에 깔려 있는 이런 개념들은 균형 잡힌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유대교 법전통의 장점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공간, 유대교, 정결법, 덮기 부정, 사적영역, 공적영역

원고접수일: 2020년 11월 9일

심사완료일: 2020년 12월 23일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28일

참고문헌

- Albeck, Hanoch ed. *The Mishna*. Jerusalem: Bialik Institute and Devir, 2011. (Hebrew)
- Horowitz, Wayne. *Mesopotamian Cosmic Geography*.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11.
- Jeffrey L. Rubenstein, Jeffrey L. “On Some Abstract concepts in Rabbinic Literature.” *Jewish Studies Quarterly* 4(1) (1997): 33-73.
- Maccoby, Hyam. “The Corpse in the Tent.” *Journal for the Study of Judaism* 28, no. 2 (1997): 195-209.
- Neusner, Jacob. “The Mishnah and its Times: The Three Stages in Halachic Category – Formation.” In *The Mishnah: Religious Perspectives*, 157-210. Leiden: Brill, 1999.
- Noam, Vered. “Ritual Impurity in Tannaitic Literature: Two Opposing Perspectives.” *Journal of Ancient Judaism* 1 (2010): 65-103.
- Weller-Cohen, Shlomit. “Imagined Places – Geography in Talmudic Literature.” *Horizons in Geography* 76 (2010): 27-46. (Hebrew)

Abstract

Space that the Jewish Purity Law Imagines

Sungduk YUN (Konkuk University)

The Torah, the Jewish traditional literature, stipulates that impurity is passed on from a source of impurity, such as a human corpse, to another person or objects that are in the same tent. Rabbinic Judaism inherits this stipulation and interprets that impurity is transferred if there is a space of at least 1 *tepah* in length, width, and height. Thus, if there is another space next to it that conforms to the minimum size, the impurity moves sideways in horizontal direction. But if there is no such space, the impurity is blocked and cannot move sideways, so it moves vertically, upwards to the sky or downwards to the deepest place.

Such an interpretation is closely connected to the concepts of private and public spaces in Jewish Sabbath regulations and civil law. On the Sabbath day, one should stay in a private space that has a fence and it is forbidden to get out of it. On normal days, one can go out to public space without any horizontal limits and can work for one's living.

Thus the Purity Law of the Torah was systematically reinterpreted by Rabbis, and the concept of 'tent' was abstracted into that of 'space,' and thus correlated to and applied to the notions of private and public space. Then they applied this new conception to the traditional Purity Law and produced additional rules. It shows a dynamic process whereby a religious legal tradition corresponds with secular traditions and produces a new way of life.

Key Words: Space, Judaism, Purity Law, impurity of tents, private space, public space